

中 긴축 우려에... '동양의 나스닥' 항셱테크 ETF 철렁

인민은행, 약 44조 유동성 회수
외인 자금 이탈에 투자심리 위축
국내 관련 ETF 5일만에 14% ↓

미래성장 주도 기대감에 관심 ↑
전문가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

홍콩 항셱테크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가 급격히 꺾이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자금까지 빠져나가며 중국 증시를 향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 테크기업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보긴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기가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만에 13% ↓...항셱테크 ETF 흔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KODEX 차이나항셱테크는 전날보다 5.44% 떨어진 1만1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5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14.48% 떨어졌을 정도로 하락폭



이 컸다. 다른 차이나항셱테크 상품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TIGER 차이나항셱테크(-14.34%), KBSTAR 차이나항셱테크(-14.40%), KINDEX 차이나항셱테크(-14.37%) 모두 5거래일간 14%대 급락세를 보였다. 이달 초만 해도 연초 이후 모두 25% 이상 수익률을 올리며 ETF 수익률 최상위권에 포진했던 상품이다. 모두 지난해 12월 16일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4개 운용사가 동시에 출시했다. 특히 KODEX와 TIGER의 경우 일 평균 거래량이 각각 70만주, 55만주에 달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

다. 중국 증시가 유동성 위축 우려로 변동폭이 커진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7일간 이어진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8일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총 2600억 위안(약 44조원)의 유동성을 회수했다. 이후 인민은행은 23일 100억위안 규모의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을 매입했다. 시장에선 중국당국이 본격적으로 부채 감축(디레버리지) 기조로 복귀하려는 것이라 관측이 나오며 긴축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4일 항셱테크지수는 5.10% 급락한 9360.95포인트로 마감했다. 홍콩

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춘절 연휴 이후 인민은행의 연속적인 유동성 흡수로 유동성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고,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공급량이 시장 예상보다 작다"고 분석했다.

◆중국 테크 기업 기대치 여전히 하지만 차이나항셱테크ETF는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로 꼽힌다. '중국의 나스닥'으로 불리는 기초지수가 혁신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술주들로 구성된 데다 이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이다. 추가 수준과 유동성 축소 이슈로 당분간 투자심리가 흔들리더라도 테크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대로라는 평가다.

실제로 항셱테크지수는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레노버, 샤오미, SMIC 등 지수에 담긴 중국 주요 테크 기업들의 규모와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는 반응이기도 하다. 중국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혁신기업으로 뽑히는 테크 기업에는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항셱테크지수는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거나 매출

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가 5% 이상 혹은 연간 매출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시가총액이 큰 30개로 구성된다. 이를 추종하는 ETF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합하다는 평가다.

김정현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팀장은 "항셱테크ETF는 중국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연금자산 처럼 긴 호흡으로 꾸준히 분할 매수하라"고 조언했다.

하재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주식시장은 경기 호조와 내부 대순환 정책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IT, 소비재, 헬스케어, 등 내수와 신경제 업종 중심의 ETF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글로벌 ETF 시장 동향을 보면 중국 인터넷 섹터도 주가 상승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절세 효과도 장점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해외 ETF는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 시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과세가 지연되고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2·4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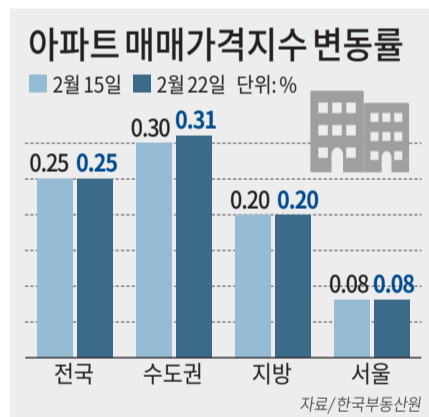
매매가 0.25%, 전세가 0.19% 상승
재건축 등 호재 강남권 상승폭 확대

아파트 거래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 22일 기준 2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25% 상승, 전세가격은 0.19% 상승했다. 서울은 0.08%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2·4 공급대책 발표 후, 강북권은 대체로 관망세 보이며 상승폭 유지 또는 축소, 강남권은 설 연휴 이후 재건축 기대감으로 상승폭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개발호재 영향이 있는



마포구가 상암동 역세권과 재건축 위주로 0.11% 올랐다.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재건축과 신축 위주로 0.11% 올랐다. 0.10% 오른 강남구는 압구정동 재건축과 일원동 대형평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신천·잠실동 위주로 0.

10% 올랐다. 양천구는 목동과 신정동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0.11% 올랐다.

전세가격도 0.19%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은 0.08%에서 0.07%로 상승폭이 줄었다. 물건부족 현상으로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방학 이사 수요가 마무리되고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는 평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가 길음·돈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3% 올랐으며 은평구는 녹번·진관동 일대 신축 위주로 0.11%, 노원구는 상계·월계동 역세권 중심으로 0.11% 올랐다. 강남구는 삼성·압구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5% 올랐으며 서초구는 반포·방배동 구축 아파트가 가격을 선도하며 0.05% 올랐다.

/정연우 기자

KB證, 美 주식 프리마켓 오후 6시로 확대

거래시간 기존대비 1시간 앞당겨
오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

KB증권이 25일부터 미국 주식 프리마켓(장전 거래) 거래 시간을 기존 대비 1시간 앞당긴 오후 6시부터 제공한다. 야간에 거래해야 하는 미국 주식의 불편함을 프리마켓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서다.

미국 주식시장은 시간대별로 프리마켓(장전), 정규장, 애프터마켓(장마감후)으로 구분된다. 특히, 국내 주식 시장과 달리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도 동시호가 아닌 경쟁매매가 진행된다.

이번 프리마켓 거래시간 확대로 KB증권 고객은 기존 오후 7시부터 11시

30분이 아닌 오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총 5시간 30분의 프리마켓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KB증권에서는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 50분까지 총 12시간 50분 동안 미국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이흥구 KB증권 WM총괄본부장은 "미국 상장 기업들의 실적 발표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프리마켓을 통해 변동성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래 시간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상품들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 고객 만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

현장 도면 실시간 확인 플랫폼 개발

대우건설, 효율적 협업환경 조성
도면 공유 플랫폼 SAM 개발완료

대우건설이 비대면 시대에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업무 및 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면 기반의 정보공유·협업 플랫폼을 개발했다.

대우건설은 도면 공유 플랫폼 SAM(Site Camera)을 개발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SAM은 건설현장의 도면과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치 기반으로 현장의 도면, 문서, 사진을 연결시켜 만든 플랫폼이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현재 자신의 위치 주변 도면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며 어떤 디바이스에서든 현

장의 모든 도면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장 직원의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해 사진 촬영, 메모, 녹음시 자동으로 해당 도면 위치에 정보가 저장된다. 또한, 도면 리비전(revision) 기능으로 항상 최신 도면을 유지하고, 도면에서 도상세 도면, 참고 도면 등의 하위도면이 연계돼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장소 제약 없이 확인할 수 있다.

SAM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웹페이지를 제공해 현장과 사무실에서 사용자가 모든 도면을 조회하고, 관련 사진, 메모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향상되고 시공관리에도 도움



대우건설 SAM(Site Camera) 기술요청 화면 및 도면

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에 개발된 SAM을 공정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며, 3D 모델링 뷰어, 실시간 스트리밍 스트리밍 등의 기술을 접목해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도 명확한 현장 상황 파악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ISA 중개형' 뱅키스 고객 가입 이벤트

한국투자證, 내달 말까지 진행
에어팟·스타벅스쿠폰 등 제공

한국투자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개형' 출시를 앞두고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예약·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뱅키스는 비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거래 서비스다.

올해부터 절세형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의무 보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다.

새로 출시되는 ISA 중개형은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가

가능해진다. 기존 혜택인 비교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과 초과분 9.9%의 분리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다음달 2일 'ISA 중개형' 계좌의 출시를 앞두고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월 1일까지 사전예약하고 한국투자 앱에서 뱅키스 ISA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가입이벤트 혜택과 별도로 스타벅스 커피쿠폰 1장을 추가 지급한다.

3월 말까지 진행되는 ISA 가입 이벤트는 ISA에 가입한 모든 뱅키스 고객에게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에어팟을 증정한다.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도 추가로 제공한다.

/송태화 기자